

대학생들의 신종감염병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건강신념 모형을 중심으로

이혜진*

유한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Factors Influence the Preventive Behavior Intent agains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of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Health Belief Model

Hye-Jin Le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Yu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COVID-19의 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신종감염병 예방행동의도영향 요인을 살펴 본 연구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사 결과 2학년 학생들에서 예방행동의도가 4.11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5$), 건강행태 결과에서는 섭식상태에서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둘째, '심각성' 요인은 예방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164$) 셋째, '민감성' 요인은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HBM연구에서 민감성은 중요요인으로 예방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높을수록 반대로 예방행동으로 인한 손실이 낮을수록 예방행동의도가 높게 나타나 예방행동의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민감성이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는 감염병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부정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지적 경향 보여진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주요 변수에서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다($\beta .64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rasp the degree of preventive behavior of new infectious diseases in university students and to seek a practical plan for preventive behavior.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degree of preventive behavior of new infectious diseases in university students enrolled in the university of D city material by applying the factors of the health belief model. Results: Research Results First, Severity factors and preventive behavior intent are associated($\beta .164$). Second, no association between the susceptibility factor and the prevent behavior intent. Third, Self-efficacy factors affected preventive behavior intent the most($\beta .640$). Conclusions: The recommendations of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future, institutional supplements and measures to foster the correct awareness level for new infectious diseases and raise the understanding of public health in a state where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new infectious diseases is high, first, regular survey and analysis, secondly, School health education, thirdly, concrete and practicable measures for one's own health management dimension should be introduced preemptively.

Key Words EIDs, HBM, Prevention Behavior Intent, Severity, Susceptibility

1. 서론

1.1 연구 배경

세계가 하나라고 불리는 글로벌시대에 감염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신종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Corresponding Author : Hye-jin Lee(Yuhan Univ.)

E-mail: leehyejin@yuhan.ac.kr

Received Sep 16, 2022

Revised Oct 05, 2022

Accepted Oct 21, 2022

증가하고 있고, 국가간 교류확대로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역시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 2019년 11월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전 세계 대유행으로 확산되었고, 각국의 보건의료시스템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다.

한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건강 및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줄이고자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수업(untact class)으로 전환되었고 당국에서는 감염병 발생 단계별 등교 방침을 정하여 감염의 확산방지에 각국의 노력을 하였다[2]. 이와 같은 조치는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활동으로 첫째 면역력이 취약한 학생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둘째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었다. 면역력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기제로 작동하지만, 주변 환경조건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 위압감을 줄 때 건강파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성장기 학생들의 면역상태를 고려한 선제적인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신종감염병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건강신념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 HBM)은 개인의 건강신념(health belief)과 건강행동(health behavior)의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활발히 이용되어 온 이론으로[3-6], 특히 질병의 예방행동과 환자 역할 행동을 예측하는데 널리 활용되어왔다. 건강신념모형을 이용한 연구는 보건의료 및 사회과학분야 등에서 암이나 고혈압, 당뇨, 에이즈, 비만 등을 중심으로 질병예방과 관련하여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7]. 그러나 연구의 대부분이 중증 질환에 중점을 맞춰 이루어진 연구로 감염병 예방행동과 관련한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Hong 등[8]이 간호대생의 신

종감염병 인식과 의사결정을 연구하였고, Park 등[9]은 메르스를 대상으로 예방행위에 미친 영향조사, Kim[10]이 대학생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예방인식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종감염병 COVID-19와 같은 대유행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향후 신종감염병의 발생 가능성과 다양한 형태의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올바른 건강정보 및 의료서비스의 올바른 선택으로 개인의 건강보호와 증진, 건강에 대한 자기 책임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신종감염병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감염병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신종감염병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예방대책과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한 실천적 계획과 예방활동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정책적 제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신종감염병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으로, 건강신념모형을 이용하여 신종감염병 심각성, 민감성, 자기효능감이 예방행동의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건강행태별 대학생들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본다. 둘째, 대학생들의 신종감염병 심각성, 민감성, 자기효능감과 예방행동의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들의 신종감염병 심각성, 민감성, 자기효능감이 예방행동의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넷째,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신종감염병 예방행동의도를 파악하여 향후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예방행동실천을 형성하는데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2020년 10월12일부터 16일까지 조사에 참여한 489명 중 무응답한 경우와 불충분한 응답을 제외한 471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를 위한 표본추출방법은 단순무작위추출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대학생들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 시작 전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 후 바로 회수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1041549-201006-SB-110)받은 후 시행되었다.

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2.2.1 심각성(severity)

심각성은 '신종감염병에 걸렸을 때의 결과의 심각성에 대해 개인의 지각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건강신념모형의 심각성 문항을 중심으로 주관적 지각으로 구성하였다. Kim의 연구에서 적용한 '신종감염병은 치명적이다,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다,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신종감염병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무섭다' 등 6개 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각성의 Cronbach's α 값은 .789이었다.

2.2.2 민감성(susceptibility)

민감성은 '신종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건강신념모형의 민감성 측정 문항을 중심으로 주관적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Moon[11]의 연구에서 적용한 항목을 수정하여 '신종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다, 친구나 동료 등 내 주위 사람들도 신종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 나의 가족도 신종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 나도 신종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 나는 신종감염병에 걸릴까

봐 두렵다'의 5개 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민감성의 Cronbach's α 값은 .949이었다.

2.2.3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은 건강신념모형의 자기효능감 측정 문항을 중심으로 Noh와 Ku[12]가 사용한 측정 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 문항은 예방행동 실천을 중심으로 '나는 신종감염병 예방행동을 실천할 자신이 있다, 시간을 내서라도/비용이 들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받는 것이 두렵더라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예방백신 있다면 시간을 내서라도/비용이 들더라도 예방 백신 접종을 받겠다.'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에서 자기효능감의 Cronbach's α 값은 .847이었다.

2.2.4 예방행동의도(preventive behavior intent)

예방행동의도는 '신종감염병 예방행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로 정의하고 선행연구 Kim이 사용한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은 5개 항목으로 '신종감염병 예방에 대한 정보 탐색, 전문가 상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신종감염병 예방활동에 대해 권유할 의사'를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에서 예방행동의도의 Cronbach's α 는 .894이었다.

2.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통해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행태, 주요 변수를 확인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hronbach's α 계수를 살펴보았으며, 타당도 검증을 위해 주성분 분석으로 신종감염병 심각성, 민감성, 자기효능감, 예방행동의도 요인으로 묶어서 살펴보았다. 셋째, 상관관계 분석으로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다변인 회귀분석을 통해 심각성, 민감성, 자기효능감이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설문의 유효 응답자 수는 총 471명으로, 분석에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학생 156명(33.1%), 여학생 315명(66.9%)로 조사되었다. 학년의 경우 2학년 224명(47.6%), 1학년 116명(24.6%), 3학년 88명(18.7%)이었으며 거주형태는 자택에서 통학 254명(53.9%), 자취 184명(39.1%)순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상태의 경우 부유(매우 부유하다+부유한 편이다)가 40명(8.3%), 경제적으로 힘든(경제적으로 약간 힘들다+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이 93(19.8%)로 조사되었다. 통학방법으로는 시내외 버스가 250명(53.3%), 걸어서 통학 176명(37.5%)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Variables	Categories	M	N (%)
Gender	Male	4.03	156(33.1)
	Female	4.02	315(66.9)
Grade	1	4.04	116(24.6)
	2	4.11	224(47.6)
	3	3.88	88(18.7)
	4	3.86	43(9.1)
Residence Type	Home	4.07	254(53.9)
	Rent	3.97	184(39.1)
	Dormitory	3.94	25(5.3)
	Other	3.93	8(1.7)
Economic State	Very Rich	4.07	3(0.6)
	Rich	4.14	35(7.4)
	Normally	4.01	340(72.1)
	Poor	4.06	78(16.6)
	Very poor	3.89	15(3.2)
Way of commuting school	School bus	4.22	20(4.2)
	Bus	4.05	252(53.5)
	Owner Car	3.89	23(4.9)
	walk	3.98	176(37.4)

다음으로 건강행태에 관련한 조사 결과 체중은 41~55kg 191명(41.3%), 56~70kg 163명

(35.3%), 70~85kg 72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 관련 ‘비흡연자’ 316명(67.1%), ‘현재 1년 동안 꾸준히 흡연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14명(24.2%), ‘1년 이상 금연 중’ 41명(8.7%)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 횟수의 경우 ‘평소 월 2주에 1회 이상 음주’는 응답 199명(42.3%), ‘평소 월 4주에 1회 이상 음주’ 154명(32.7%), ‘전혀 음주를 하지 않는다’ 53명(11.3%) 순으로 나타났다. 중등도 운동의 경우 119명(25.3%), 걷기 운동은 177명(37.6%)으로 나타났다. 섭식상태의 경우 ‘충분한 양과 다양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었음’ 257명(54.8%), ‘충분한 양을 섭취하였으나 다양한 식품을 섭취할 수 없었음’ 168명(35.8%), ‘부족한 식사량과 다양한 식품을 섭취할 수 없었음’ 44명(9.4%) 순으로 나타났다. 간식섭취 여부는 242명(51.6%)가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의 경우 7~8시간 276명(58.6%), 6시간 미만 124명(26.3%), 9시간 이상 71명(15.1%)로 나타났다. 건강용품의 사용은 마스크착용 470명(50.6%), 손 세정제 335명(36.1%), 개인 물병사용 86명(9.3%)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를 주로 얻는 매체로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447명(95.3%), TV 또는 라디오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3.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생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는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결과의 상관관계 알아보기 위해 KMO (Kaiser-Meyer-Olkin) 검증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KMO=.870, Bartlett 구형성 검증 $\chi^2=5359.78(df=136, p=.000)$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에서 관련 요인들의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5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 이하 변수인 심각성 3번 문항(신종감염병은 고통스러운 질병이다)과 민감성 5번 문항(나는 신종감염병에 걸릴까봐 두렵다)은 제거하였다. 분

[Table 2] Health behavior

[표 2] 건강 행태		(N=471)	
Variables	Categories	M	N (%)
Body weight	40kg≥	4.28	5(1.1)
	41~55kg	4.03	191(41.3)
	56~70kg	4.00	163(35.3)
	70~85kg	4.02	72(15.6)
	86kg≤	4.04	31(6.7)
Smoking	Smoker	3.95	114(24.2)
	Stop Smoker	4.12	41(8.7)
	Non Smoker	4.04	316(67.1)
Frequency of Drinking	Twice a mon.	4.02	199(42.3)
	Once a mon.	4.03	154(32.7)
	A little	4.00	65(13.8)
	None	4.04	53(11.3)
Amount of Drinking	Heavy	3.99	259(55.2)
	Moderate	4.09	102(21.7)
	Little	4.04	58(12.4)
	None	4.06	50(10.7)
Moderate Exercise Activities	Yes	4.12	119(25.3)
	No	3.99	352(74.7)
Food intake	Sufficient	4.10	257(54.8)
	Moderate	3.93	168(35.8)
	Poor	3.98	44(9.4)
Sleep Hour	6hrs.↓	4.04	124(26.3)
	7~8hrs.	4.01	276(58.6)
	9hrs.↑	4.05	71(15.1)
Health supplie*	mask	4.01	470(50.6)
	hand sanitizer	4.37	335(36.1)
Search of Information	Internet or Mobile	4.01	447(95.3)
	TV or Radio	4.37	15(3.2)
	Book or News paper	3.68	5(1.1)
	Expert Consult	3.60	2(0.4)

*Multi.responses

석 결과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인 요인 3개가 추출되었으며 심각성, 민감성, 자기효능감 요인을 설명하는 총분산 설명력은 62.4%로 나타나 측정 항목들의 타당도가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신종감염병 예방행동의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와 같이 KMO검증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KMO=.795, Bartlett 구형성 검증 $\chi^2=1608.308(df=10, p=.000)$ 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마찬가지로 관련 요인들의 요인적재량은 .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고유값 3.54, 총분산 설명력은 70.8%로 나타나 측정 항목의 타당도가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의 신뢰

도는 .894로 충분한 신뢰성을 갖고 있었다.

3.3 기술통계 및 정규성 분석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정을 위해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심각성 4.018(5점 만점), 민감성 4.449, 자기효능감 4.058, 예방행동의도 4.023으로 나타났다. 정규성 검토를 위해 정규성 항목 중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료의 정규성 검사결과 일변량 정규성 가정에는 왜도가 -.671~-.048, 첨도의 경우 -.784~.322로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설 검증을 위해 먼저 주요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3.4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Table 3]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 나타낸 것이다. 신종감염병의 심각성, 민감성, 자기효능감, 예방행동의도 변수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각성과 예방행동의도의 경우 $r=.536(p<.01)$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민감성과 예방행동의도의 경우 $r=.400(p<.01)$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과 예방행동의도의 경우 $r=.756(p<.01)$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종속변수인 신종감염병 예방행동의도와 독립변수 심각성, 민감성,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각성과 민감성의 경우 $r=.409(p<.01)$, 심각성과 자기효능감의 경우 $r=.533(p<.01)$ 유리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독립변수 자기효능감과 민감성의 경우에 $r=.428(p<.01)$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적으로 독립변수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표 3] 상관분석

		SV	SC	SE	PBI
SV	r	1			
	Sig.				
SC	r	.409**	1		
	Sig.	.000			
SE	r	.533**	.428**	1	
	Sig.	.000	.000		
PBI	r	.536**	.400**	.756**	1
	Sig.	.000	.000	.000	

*p<.05, **p<.01, ***p<.001

SV(Severity), SC(Susceptibility), SE(Self-efficacy), PBI(Preventive behavior intent)

3.5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예방행동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 : variable inflation factor)와 허용치(tolerance)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형1단계에서 신종감염병 예방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학년과 섭식상태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학년에서 (-2.066, p<.05)과 섭식상태에서 (-2.007, p<.05)로 두 변수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낮았다. 모형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로 심각성, 민감성, 자기효능감을 투입하였으며, 설명력은 60%로 나타났다. 심각성 β=.164(p<.001)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감성 β=.063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p>.05). 자기효능감 β=.640(p<.001)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종감염병 심각성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우 예방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민감성은 예방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표 4] 다중회귀분석

Model	B	S.E	β	t	Sig.	VIF	R ² (Adj)	F(p)
1 (Cons.)		4.326	.106	40.886	.000			
	Grade	-.072	.035	-.095	-2.066*	.039	1.003	
	Eating cond.	-.094	.047	-.092	-2.007*	.045	1.003	.018* 4.378* (.014) (.013)
2 (Cons.)		.387	.186	2.080	.038			
	Grade	-.028	.023	-.037	-1.260	.208	1.013	
	Eating cond.	.001	.030	.001	.041	.967	1.030	
	SV	.162	.035	.164	4.568***	.000	1.495	
	SC	.072	.039	.063	1.877	.061	1.317	.601 139.340*** (.596) (.000)
	SE	.671	.038	.640	17.610***	.000	1.529	

*p<.05, **p<.01, ***p<.001

SV(Severity), SC(Susceptibility), SE(Self-efficacy), PBI(Preventive behavior intent)

4. 고찰

본 연구는 신종감염병 COVID-19의 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신종감염병 예방행동의도의 영향 요인을 살펴본 연구로, 신종감염병 심각성, 민감성, 자기효능감과 예방행동의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행태 따른 조사 결과 2학년 학생들에서 신종감염병 예방행동의도가 4.1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선행 연구에서는 예방행동의도에 성별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에서 예방행동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행의 정점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진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상태에 따른 결과도 같았다. 건강행태에 따른 결과에서는 섭식상태에서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p<.05).

둘째, 신종감염병이 자신에게 발병할 위험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는 ‘심각성’은 예방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신종감염병은 치명적이며 치료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이

따를 것으로 인식할 경우 예방행동을 일으킬 의도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신종감염병이 자신에게 발병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의미하는 '민감성'은 신종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며 자신이나 가족, 주변의 동료 등이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대한 질문이었으나,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HBM연구에서 민감성은 이론적 및 실무적 중요요인으로 예방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높을수록, 반대로 예방행동으로 인한 손실이 낮을수록 예방행동의도가 높게 나타나 예방행동의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민감성이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는 감염병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미래의 부정적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지 않을 것'이라는 인지적 경향성이 보여진다.

넷째, 건강신념모형의 수정된 개념 중 주요 요인인 '자기효능감'은 주요 변수에서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다($p < .001$).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신종감염병에 대한 예방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다섯째, 신종감염병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모형 1과 모형 2의 결과에서 모형 2의 투입된 독립변수인 민감성의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에 대한 해석의 논의가 필요하다.

5. 결론

5.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신종감염병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환경에서의 감염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지금까지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한 연구는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신종감염병을 검증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둘째, 건강신념모형의 주요 요인들과 예방행동의도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는 기전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민감성이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주관적 지각인 심각성과 개인의 신념요소를 담고 있는 자기효능감은 예방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신념모형의 각 구성요소에 따라 예방행동의도에 나타나는 예방실천행동이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들은 심각성이나 자기효능감이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민감성의 경우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다른 관계의 기전이 작동될 수 있다. 따라서 연령대별 대상을 달리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실증 분석하여 기전을 정밀화할 필요가 있다.

5.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의의와 함의로 첫째, 대학생들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 수준 함양과 공중보건 이해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다[12]. 성인 연령군에 포함되는 대학생들은 학교 제도의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사회활동이 많은 집단으로 질병에 대한 낙관적 사고(optimistic thinking)의 경향을 보였다. 특히 조사 대상 학생들의 연령을 보면 1995~2002년생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한 초등학교 시절부터 신종감염병을 경험한 연령군으로 집단 학습 과정을 거치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객관적 병인식은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경험이 신종감염병의 위협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낮게 할 수 있다. 이는 '신종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조사에서 민감성이 낮다는 점은 신종감염병 예방행

동을 저해하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즉 적극적인 예방행동을 지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건강 조사와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대학생들의 신종감염병과 관련한 정기적인 학교 보건교육으로 예방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학교 보건교육은 단순히 위생이나 위기만을 강조하는데 그치지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행위가 자신의 건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목표임을 인식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교육을 통해 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 행동(behavior)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들의 신종감염병 예방행동을 위한 자기건강관리(self-care) 차원의 적극적 실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대학은 올바른 시민으로의 선제 조건이 되는 건강한 시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건강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자기건강관리 차원의 행동 방안으로 적극적인 건강정보 탐색, 필요에 맞는 의료서비스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국가 보건조직의 이해 및 보건 관련 직업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여전히 유행중인 COVID-19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대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천행동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되며 분명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건외식에 긍정적 변화가 있음은 틀림없다[13].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신종감염병 예방행동의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개인의 적극적인 예방행동의도가 감염병 예방실천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의와 중요성을 밝히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방법론면에서 단면분석연구로 변수들간 인과관계의 확정이 어렵다. 둘째, 변수측정을 자기기입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공통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으며, 다른 학령인구 집단이나 연령군을 대상으로 조사 할 경우 연구 결과가 본 연구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신종감염병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대별 관련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향후 연구에서는 신종감염병의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낼 수 있도록 여러요인들을 분석한 연구설계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외적 타당성 확보와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각 연령 및 집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성 요인과의 관계가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생들의 신종감염병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학교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전파력이 있는 감염병을 착오없이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생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올바른 건강정보 및 의료서비스의 올바른 선택으로 개인의 건강보호와 증진, 건강에 대한 자기 책임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하겠다.

References

- [1] D.Y Yoo and J.H Park, A Comparative Study of Infectious Disease Government in Korea: What We Can Learn from the 2003 SARS and the 2015 MERS Outbreak.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Vol.27, No.1, pp.243-280, 2018.
- [2] S.M Kim and J.M Choi, The effect of ego-resiliency on the quality of life under COVID-19 situations: stress-mediating effect,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 9, No. 1, pp. 203-211, 2021.
- [3] Glanz, K., Rimer, B. K., and Lewis, F. M.,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San Fransisco: Wiley & Sons, 2002.
- [4] Becker, M. H., 'The Health Belief Model: A

- Decade Later', *Health Education Quarterly*, Vol.11, no.1, pp.1-47, 1984.
- [5] Hochbaum, G., 'Why People Seek Diagnostic X-rays', *Public Health Reports*, 71, pp.377-380, 1956.
- [6] Rosenstock, I. M., 'Historical Origin of the Health Belief Model. In M. H. Becker(ed.)',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ersonal health behavior, 1-8. Thorofare, NJ: Charles B. Slack, Inc.*, 1974.
- [7] H. Zhang, J.S Park and K.S Lee,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s of Overseas Infectious Disease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NS eWOM',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pp. 265-302, 1999.
- [8] Y.S Kim, S.S Hong, Awareness about Pandemic Infectious Diseases, Ethical Awareness, and Ethical Decision-making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3, No.3, pp.326-339, 2019.
- [9] H.J Park and O.C Lee, 'Ethical awareness and decision-making of healthcare providers in response to pandemic influenza-focused on Middle East Respiratory Symptom coronavirus', *Crisisonomy*, Vol.15, No.1, pp.19-29, 2019.
- [10] S.D Kim, 'Analysis on University Students' Prevention Awareness of EID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3, pp.447-454, 2019.
- [11] J.S Moon, 'A Study of Instrument Development for Health Belief of Korean adult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1990.
- [12] Y.H Ku and G.Y Noh, 'A Study of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Optimistic Bias on Breast Cancer Screening Intention-Focusing on the Health Belief Model(HBM)',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34, No.2, pp.73-109, 2018.
- [13] Y.H Lee and O.Y Yang, 'A study on perceptions of university students about the COVID-19 vaccine',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10, No.1, pp.89-98, 2021.